



왕십리

2004년 12월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내·마·음·의·풍·경



빛으로 오신 주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시어
세상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하시고
생명을 주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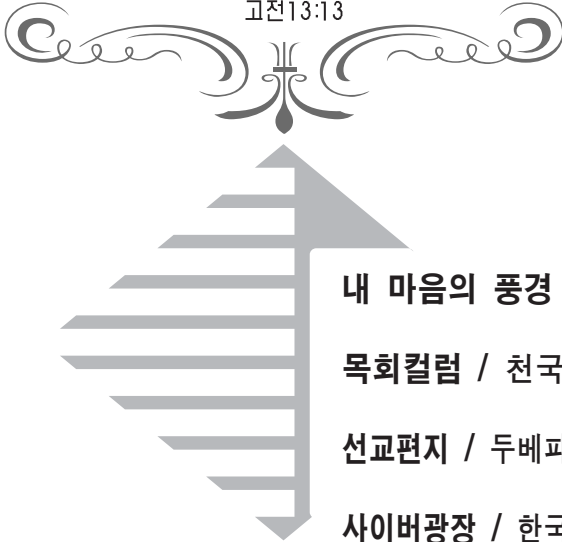
글· 사진 / 차주영

- 이달의 성구 -

목 차 / Contents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13:13



내 마음의 풍경 / 빛으로 오신 주	- 3
목회컬럼 / 천국밥상	- 4
선교편지 / 두베파카족(族) 추장 원바르	- 5
사이버광장 / 한국 교회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대응	- 6
기획기사 /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2)-전덕기목사편	- 8
특집기사 / Oh, Happy Day!	- 11
왕십리이모저모 / 제 4회 사랑의 초청잔치	- 13
왕십리블로그 / 취업의 문을 두드려라	- 14
가정예배 /	- 16
건강상식 / 냉증에 대한 한방치료	- 20
책소개 /	- 21
음반소개 · 퀴즈	- 22
요리 / 단호박 그라탕	- 23

천국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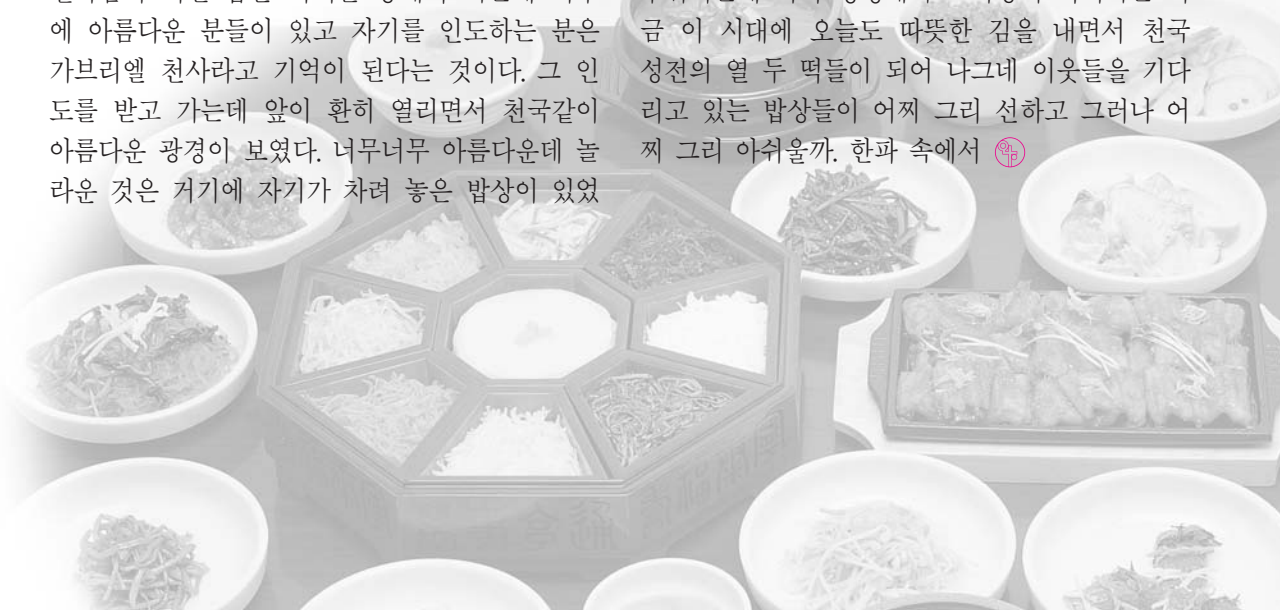
WANGSIMINI 4

2004년 11월 16일 대심방때였다. 어떤 가정 이 담임목사 일행에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 그런데 다른 성도가 꼭 담임목사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하셨다. 88세 되신 권사님이신데 언제 당신이 천국갈지 모르니 이번에 꼭 목사님 식사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셔서 구역장님이 다른 분을 양보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드디어 점심시간에 그 권사님댁 심방을 했다. 예배 후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시는지 음식 하나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골고루 잘 먹어야 하는 사명감(?)을 느끼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냥 먹을 것 몇가지만 놓아도 되는 데 왜 이렇게 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었다.

대심방 이들 전에 권사님이 꿈을 꾸셨단다. 꿈에 권사님이 어떤 좁은 사이를 통해서 가는데 좌우에 아름다운 분들이 있고 자기를 인도하는 분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기억이 된다는 것이다. 그 인도를 받고 가는데 앞이 환히 열리면서 천국같이 아름다운 광경이 보였다. 너무나 아름다운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자기가 차려 놓은 밥상이 있었

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밥상이 부실해 보이고 그 밥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다. '아니, 내가 목사님께 대접한 밥상이 여기 있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을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는데 잠이 깨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렇게 모든 정성을 힘껏 쏟아부으며 음식을 장만했다고 하셨다.

천국밥상. 나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에 이런 뜻도 있구나. 사랑의 밥상이 천국밥상이구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사랑의 밥상을 이웃에게 나누어줄 때 천국의 밥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보니 성탄절 때가 되면 정말 천국밥상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 천국밥상 곁에 또 하나의 밥상이 마음의 눈으로 보였다. 바로 양보한 그 집사님의 밥상. 그리고 지금까지 봉사한 분들의 그 사랑의 밥상들... 한 해가 저물고 날이 추워지는데 역시 냉랭해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도 따뜻한 김을 내면서 천국 성전의 열 두 떡들이 되어 나그네 이웃들을 기다리고 있는 밥상들이 어찌 그리 선하고 그러나 어찌 그리 아쉬울까. 한파 속에서 



두베파카족(族) 추장 원바르

엄경섭·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 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 선교게시판의 선교사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굽즈족속은 여러 씨족으로 나누어 집니다. 미션 스테이션(선교 기지)이 위치한 곳이 ‘예콘코’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두베파카족에 속해 있습니다. 두베파카족은 워낙 숫자가 많아 그 세력과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굽즈족속 전체 대통령도 바로 이 두베파카 출신입니다.

미션 스테이션에서 조금 더 가면 갓사스산의 정상에 도달합니다. 이 산은 외지고 숲이 우거져 도적들과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유명합니다. 이 갓사스산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두베파카족 사람들입니다. 이 갓사스 일대의 두베파카 사람들은 거칠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갓사스 일대를 지키고 다스려온 사람이 ‘응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팔을 잃은 두베파카족의 용사입니다. 이제 그가 늙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원바르’라는 사람이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원바르는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굽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 사람들도 부터도 그 용감성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합니다.

원바르는 아내 둘을 잃었습니다. 둘 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살해당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근을 피해 월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암하라족속 무슬림 가운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한 여자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었습니다. 물론 월로 무슬림들은 그 살인자를 굽즈 족속의 누군가로 보게 되었습니다. 굽즈 사람 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살인 사건이 난 얼마 후 원바르의 두 번째 아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월로 무슬림들의 보복 살인으로 생각되었고, 마침내 굽즈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월로 무슬림 중의 한 사람인 에누스라고 지목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굽즈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에누스로 지었습니다. 글씨가 없는 이 들로서는 살인자를 잊지 않기 위해 아기의 이름을 살인자의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살인자로 지목된 에누스는 월로 지방 먼 곳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난 바로 이틀 후, 월로 무슬림들 중 두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이유 없이 살해 당했습니다. 물론 그 살인자를 굽즈 사람으로 그리고 그 배후를 원바르로 추측할 뿐입니다. 월로 무슬림들은 원바르에게 화해를 요청하였고, 화해의 대가로 14마리의 소를 비롯하여 여러 염소와 양을 원바르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원바르의 아내 살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굽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불 태워 버리고 다른 집을 짓고 삽니다. 원바르는 죽은 아내의 집을 불태워 버리고 아예 일가 친척들과 함께 전쟁하기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전체가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우리가 선교 기지를 세우고 하는 갓사스 산의 예콘코 지역인 것입니다. (9)



두베파카족(족) 추장 원바르

한국교회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대응

— 이광호 목사/ 실로암교회

본교회 웹사이트(www.wpc.or.kr)의 게시판에 한구상 장로가 게재한 내용을 발췌한 글입니다.
본 내용은 본 교회나 본 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복음을 포기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다양한 종교들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마침내 ‘사랑과 화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진리마저 해체하고 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지난 5월 12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다. 그는 특강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평등관계를 강조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식 구원이며, 불교의 구원은 불교식 구원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 즈음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대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우리 민족의 감성적 자세이다. 한국 교회에는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을 정죄했다. 올바른 교회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과 원리가 아니라 분위기에 따른 이단 정죄라는 점이다. 한국 교회는 처음에 이단이라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신학적인 충분한 검증없이 이단의 족쇄를 해제하는 모순을 순하게 범해오고 있다.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도 한때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들이 있었지만 덩치가 커지자 여론의 추이에 따라 지금은 이단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검증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 경험에 의한

논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복음 교회의 성장을 부러워하는 자들은 조 목사의 사상 뿐 아니라 그의 말투까지도 따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 날 동국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 날의 발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점은, 5월 12일 동국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기 전과 후의 조용기 목사의 사상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그가 그 날 특강에 초청받지 않았다 해도 그의 속 사상은 여전히 동일하다. 즉 그런 불순한 신학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의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의 그 날 특강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종교다원주의적이다. 즉 그는 종교간의 평등과 대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는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나 평등하다”(특강원문)고 주장했다. 그리고 “불교나 기독교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한국의 불교나 기독교의 지배종교가 지배 한다면 지배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 윤리, 도덕이 서고 인생관과 철학이 서고 생활가치가 설 것”(특강원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불교가 왕성해야겠고, 기독교가 왕성해야 되겠고, 불교와 기독교간에 긴밀한 대화를 해야겠다”(특강원문)고 말했다.


어떤 참석자가 “예수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조

목사는 “(일반)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독존적으로 생각하므로 많은 분쟁이 생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나서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종교는 평등하다”(특강원문)고 하자 참석했던 불교 신도들의 박수가 뒤따랐다. 뒤이어 다른 참석자가 마치 재확인이라도 하듯 “오늘 목사님의 말을 기독교의 예수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도 그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며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되면 상생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한다”(특강원문)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는 불교의 개유불성(皆有佛性)을 언급하면서, “풀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벌레 한 마리에도 신성이 계신다”(특강원문)며 비기독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 종교다원주의의 한 배경이 되는 범신론 사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국대학교에서 있었던 특강 내용을 살펴보면 조용기 목사는 매우 불건전한 인물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혜안(慧眼)은 설령 그가 지난 5월 12일 동국대학교에서 그런 특강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의 사상을 아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강의 중에서도 그랬지만 그는 현세기복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균형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수가 75만이라고 밝혔으며 매주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5백만 명이라고 자랑했는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말을 듣는 어린 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가 아니어도 한국에는 그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그들에게는 단지 그 <5월 12일>이 오지 않았으며, 불교대학교의 특강 요청이 없었을 따름이다.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조용기 목사가 당하는 비난을 보며 그들은 더욱 자신의 비복음적인 사상을 숨기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만큼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한국기독교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진리는 죄악된 세상과 구분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 벽을 허물고자 하는 노력은 ‘종교적 대화’에서 구체화하게 된다.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랑과 화해’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며, 마치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의미인 양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그런 사조들을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조용기 목사의 종교다원주의 발언이 있은 후 한국기독교의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그에 대한 공적인 비판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시대에 일어나는 보수주의 교회들의 신에큐메니즘은 그런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포스트모던 사상과 궤를 같이 하는 개교회주의로 인한 폐단 때문인가? 건전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신학사조가 퍼져나갈 때 그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편집자주-

- 이광목 목사
- 실로암 교회(경북 경산시 외촌면 소재) 담임
- 고려신학대학원(M.Div)과 ACTS(Th, M)에서 신학 일반과 조직신학 공부
- 대구효성기독교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연구, 철학박사 취득
- 이슬람 전문 선교 단체 국제 WIN선교회 참여
-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영남신학대학원 출강 중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2)

- 전덕기 목사편 -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1)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2)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3)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4)

4회에 걸쳐 전덕기 목사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전덕기 목사는 이승만, 김구 등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상동 교회를 중심으로

당대 민족운동을 즐기치게 펼치며 그리스도를 섬겨 온 신앙인입니다.

1. 치유의 시작 - 그리스도의 사랑

그날부터 선교사의 집에 자주 오가기 시작했다. 배달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꼭 그 집에 들러 선교사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갈 때마다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가족을 잃었던 아픔은 가족보다 더 포근한 온정으로 다가오는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의 나라와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야 그에게서 느껴지던 따뜻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직 그분을 만나기 전, 그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코 싫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내 인생에도 향기로운 꽃이 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조금씩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1885년 5월 1일 최초로 한국에 상주한 북미 감리회 의사 출신의 선교사였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4월 5일 먼저 조선에 들어왔으나 갑신정변의 불안으로 여성이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미공사의 지시에 따라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최초의 상주 선교사라는 영광이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의사로서 병원을 통해 수많은 조선인들을 치료하였다. 처음에는 정동에서 살았으나 외국인 거주지인 정동을 조선인들이 찾아가기 어려워 결국 남대문 시장 가까이에 있는 상동으로 이사를 한 것이다. 그는 상동에서 2,200여 평의 땅을 사서 약국과 병원을 운영하였고, 그 곳은 곧 상동교회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스크랜튼 선교사는 의료 선교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아펜젤러 선교사와는 늘 불편한 관계에 있기도 했다. 내가 돌을 던졌던 곳은 바로 스크랜튼 선교사가 살고 있던 정동의 저택이었다. 주의 선교사를 향해 돌을 던졌다는 사실이 훗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를 향해 던진 돌이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상동의 약국은 곧 병원이 되고 스크랜튼은 병원의 환자들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병원은 다시 교회가 되었다. 정동에 있는 그의 집에 종종 찾아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다. 그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조선 아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스크랜튼을 만날 수가 없었다. 정동에 있는 집에 찾아가도 그는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몇 번이나 그 집 앞에서 그를 만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나

는 곧 그가 안식년을 맞아 고향으로 쉬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식년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고향에 쉬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쯤 그가 돌아올지 몰라 가끔씩 그의 집을 들르곤 했다. 1년을 기다려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찾아갈 때마다 실망도 커져갔다. 하지만 그를 만났던 그 경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계속 그를 기다렸다.

2.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가 떠난 지 1년 반이 지나자 극적으로 그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나는 이제 17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리창을 깨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날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고아임을 밝혔다. 아마도 그는 내가 고아라는 사실로 인해서 나를 더욱 불쌍히 여긴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893년에는 상동교회가 정식으로 구역을 조직하면서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다. 4년 동안 나는 그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며 기독교 교리를 익혀갔다. 그러던 중에 20살이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노총각이라고 놀렸다. 당시 나이 20세라면 노총각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확장으로 너무도 바쁘게 지냈기 때문이고, 주일 낮 예배에 300명이 모이고 교회 자리가 없어 건물 밖으로 천막을 치는 등 그 모든 일이 내게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였기 때문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나는 부흥의 시대 속에, 그리고 그 부흥의 한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즐거움이 없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나는 확실히 그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다.

삼촌께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셨다. 15세의 참한 신부감이 있다고 중매를 하신 것이다. 나는 조

정식이라는 소녀와 결혼을 하고 이듬해 세례를 받았다. 감격이 멈추지 않는 시절이었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인생의 날을 뽑으라면 나는 그 때를 꼽을 것이다. 선교사님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을 찢어 놓고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던 그 순간들 버려진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는 그 순간……; 나는 영원히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3. 내 조국 조선의 위기

내가 가장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 조국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교육은 나로 하여금 시대를 바라보게 하였다. 나의 관심이 이제는 더 이상 소년시절 선교사들에 대한 동네의 소문이 아니라 조국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만큼 나는 성장해 있었다. 내가 결혼을 하던 전후로 동학난과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일본의 조선을 침략하려는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왕후가 시해되고 고종 황제는 자기도 피살 될까봐 떨고 있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에 대항하려 하였던 아관파천도 이 때 발생하였다.

시대는 대혼란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런 시대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였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며 이 시대




속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독립협회를 알게 되었고, 나는 일반회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독립협회는 계몽 운동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각 곳에서 윤강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차례로 3분이고 5분이고 계몽을 외치며 연설을 했다. 나도 이 윤강회에서 몇 번이고 나가서 연설을 했다. 처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순간에는 머리가 아찔하고 떨렸지만 어느 날 부터는 담력도 생기고 말솜씨도 많이 늘어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결국 지도층의 인정을 받아 공식적 간부는 아니지만 회원 간부인 서무부 과장을 맡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첫 아들 무술을 얻었고, 서재필 박사나 윤치호, 이상재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이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었다. 윤강회를 통해서 말주변 없던 나는 대중을 향해 말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은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또한 독립협회 활동을 통한 지도층과의 만남은 훗날 상동교회를 통한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게 해주었다. 이 모든 만남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2년 7개월의 독립협회 활동은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지도자들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운 계기가 되었으나 1898년 12월 25일 400명의 핵심 멤버가 정부에 의해 일방타진됨으로 완전히 해산됐다. 나도 그날 그들과 함께 잡혀갔으나 곧 석방되었다.

4. 교회의 위기

민족이 어렵던 시기에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닦쳐왔다. 선교사님의 사역이 크게 확장되자 선교사

님은 본국에 6명의 선교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때문에 조선인 전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상동교회를 봉사했던 전도사들이 하나같이 세상을 떠났다. 노병일, 강훈식, 송성옥 전도사가 눈을 감았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동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병원 역시 의사들이 병이 들어 본국으로 귀국하기 시작했다. 선교 사업의 모든 영역이 큰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실로 큰 위기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위기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나에게서는 기회가 되었다. 독립협회가 아직 해산되기 전인 그 때 나는 교회에서 23세의 적은 나이로 속장이 되었다. 속장은 한 지역을 책임지는 구역장을 의미한다. 직책상 준교역자인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는 목회 사역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다. 독립협회에서 청년들과 일하던 것이 구역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으며, 엠티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이 청년회는 훗날 민족운동의 요람이 되는 모체가 되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큰 위기는 내게 가장 큰 기회가 되었고 가장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시대와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 나를 목회자로 또 독립운동가로 훈련시키고 계셨다. 위기의 시대는 위기를 기회로 이는 믿음을 요청한다. 그 요청에 나는 내 인생을 걸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요청이 하나님의 요청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Oh, Happy Day!

매년 은혜가운데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행사. 그 가운데 꽃인 고등부가 주관하는 칸타타! 현재 고등부 찬양대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이현주 집사를 통해 2004년 고등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 불러질 곡과 해설등을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탄절 전야에 왕십리 교회 본당에 모여 왕십리교회에 실린 해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들으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 편집자

2004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가 걷는 길가엔 낙엽들로 수놓아지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은 12월을 알리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과 자축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설렘으로 떠들썩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로 더욱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도 촛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공부하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습였고, 고등부 친구들뿐 아니라 악기와 안무를 통해 청년 형제·자매들과 장년들이 모여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탄 전야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주제는 “Oh, Happy Day!(오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차매 우리를 부르시고,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반열에 올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살게 하시기에 기뻐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제는 “ Oh, Happy Day!”입니다.

1. An Acclamation of Praise(찬양의 외침)

알렌포트(Allen Pote)

첫번째 곡은 시편 89편을 기초로 곡을 붙인 “찬

양의 외침”입니다. 알렌포트의 곡들은 찬양의 열정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신선하면서도 알렌포트 특유의 분위기가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감흥을 일으키게 합니다. 미국 내 교회 성가대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성가 작곡자 베스트 5위 안에 들 정도로 예배음악의 최우선 레퍼토리로 선곡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여는(Opening)곡으로 잘 어울어집니다.

2. 복치는 소년(The Little Drummer Boy)

노상학 작사/H.Simcone 작곡

크리스마스 캐럴송으로 빼놓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느 캐럴송들이 발랄하고 경쾌한 반면 이 노래는 다소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멀리서 들리는 작은 북소리와 함께 테너와 베이스의 단순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북소리 묘사를 통해 우리에게 낮은 찬양이 울립니다.

3. 맛 잃은 소금

이상준 작사/곡/편곡

고등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아카펠라(A Cappella) 곡입니다. 아카펠라라는 말은 원래 ‘교회풍으로’ 혹은 ‘성당풍으로’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다시말하면 16세기 유럽의 교회 및 성당에서의 악기 반주 없는 합창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카펠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반주의 스타일을 취한 것은 신에 대한 찬양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순수해야 한

다는 취지에서 인간의 목소리로만 노래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곡의 내용은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 생활을 꼬집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 살것을 기원하는 것이며, 경쾌한 리듬으로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내기 때문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4. 오 기쁜 날(Oh Happy Day)

Edwin R. Hawkins 작사/곡, 연혁 편곡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주제곡입니다. 미국영화 “시스터액트 2”에서, 말썽부리는 문제 아이들로 가득 찬 폐교 직전의 수도원에서 들로리스라는 성가대 선생님이 합창 대회를 통해 문제아이들의 재능이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됨을 기뻐하는 노래를 편곡한 찬양입니다. 흑인들 특유의 영감어린 가스펠 곡으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5.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Billy Sprague, Niles Borop 곡/

David T. Clydesdale 편곡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으로서 빌라도 법정에서 끌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십자가 수난의 길을 말합니다. 또한 스테반이 복음을 사수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 갔던 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로 향해 걸으시던 약 800m의 길, 그리고 끌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성탄절에 우리 귀에 익숙한 찬양들입니다. “기뻐하라 주 오셨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들의 노래가”, “오라 모든 성도여”, “고요한 밤 거

룩한 밤”, “오 거룩한 밤”

7. 가라 세상 끝까지(Go Ye Into All the World)

Eugene Butler /홍정표 역

강렬한 락 비트와 크레센도(cresc)와 데크레센도(decresc), 포르테 시모의 환상적인 화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곡입니다.

8. 성경 목록가


찬송가

찬송가 364장의 “내주를 가까이”를 가사만 편곡한 성경 목록가로서,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각 목록의 요점을 손동작으로 표현했습니다.

9. 할렐루야(Hallelujah)

G. F. Handel


매년 맨 마지막에 찬양드리는데 헨델의 할렐루야입니다. 이 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The Messiah)”의 2부 44번째 곡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연이은 작품의 실패로 경제적 파탄과 정신적 실의에 빠진 헨델은 아일랜드 자선 음악 단체 <필하모니아 협회>로부터 신작 의뢰를 받아 1741년 3부 구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노래했다기 보다 인간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수난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총 53곡으로 메시아는 되어 있는데 1부는 21번곡까지, 2부는 22번곡부터 44번곡까지(44번곡이 할렐루야입니다), 3부는 45번곡부터 53곡까지입니다.

1750년 런던 초연 때 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코러스>에 감동하여 자리에 일어나게 된 이래 오늘날에도 이 곡이 연주될 때 기립하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1750년 이래 헨델은 고아원을 위한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곡을 매년 연주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 세계 각국에서 자선 연주회 형식으로 많이 찬양되는 곡입니다. 

제 4회 사랑의 초청잔치

지난 12월 1일 본교당에서 사회봉사위원회 주최로 300명의 본교회 성도들이 모여 '제4회 사랑의 초청 잔치'를 개최하였다. 1부 예배와 2부 사업보고 및 지원금 전달식, 3부 찬양 및 마술 공연, 4부 식사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본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20개의 지원단체가 참석했다. CTS방송과 기독교신문사등 교계 신문, 방송사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부 사업보고 및 지원금 전달식에서 총무 차기환 집사는 사업보고를 통해 2004년 한 해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나그네이웃 무료 급식, 결식아동 돕기, 모자가정 돕기,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활동, 샘물의 집 봉사, 무료 이·미용 실시, 원주 포도마을 봉사 등 총 10,751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냈다.

이번행사는 쌀 판매 수익금 450만원, 사라 전교회 50만원, 사회봉사위

원 및 독지가의 지원등을 통해 2,300만원으로 준비했으며, 본교회 모자·부자 가정, 장애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980만원후원, 20개 지원단체에 1,000만원, 식대 300만원과 기타 비용 20만원등으로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원금 전달식 후 신아 재활원등 9개 단체에서 본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3부 순서에서는 사회봉사위원회 소속의 샬롬 중창단의 찬양과 한우리크로마하프단의 수화찬양, 그리고 사회봉사위원과 봉사자들의 특송, 손성래 집사의 독창, 황찬길 화백 가족의 신비의 매직 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올해 사회봉사위원회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장애우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부활 연합예배와 1600여명이 참석한 포천 한국중앙 기도원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산상부흥회를 진행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WANGSIMNI 13

짠 비둘기 등장

↓ 샬롬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 후원금 전달



↑ 손성래씨의 아름다운 독창

↑ 이날 참석한 본 교회봉사자들의 찬양

취업의 문을 두드려라

1. 이력서는 나를 대신하는 분신

어떠한 경우라도 이력서는 취업하려는 기업과의 1차적 의사소통 수단이자, 자기 자신을 시장에 알리는 첫 광고이다.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때 관련 인력이 얼마나 많은고뇌와 테스트를 거치는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물론 개인의 평가가 겉으로 드러난 포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또한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력서 작성에는 온갖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내용은 면접시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 혹시 그 순간을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2. 분신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이력서는 자신이 살아온 기록을 남에게 알리는 문서이므로 각자의 개성과 장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ㄱ)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새로운 인원을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특성상 보기 쉽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력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번거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여 줄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자리(Position)나 조직에 왜 적합한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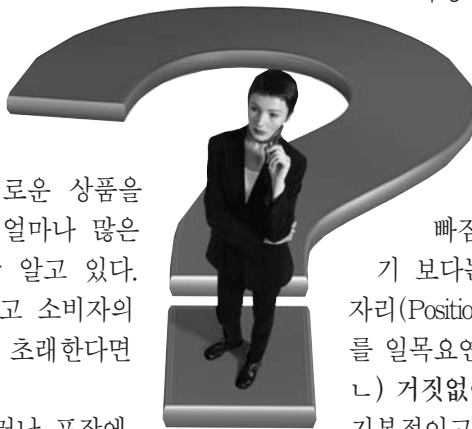
ㄴ) 거짓없이 솔직하게 작성한다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실로서 만일 허위사실이 면접과정이나 입사 후

라도 밝혀지면 입사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한다.

ㄷ) 깨끗하게 작성한다
아직도 일부 업체는 자필이력서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PC를 활용하고 있어 각 이력서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같은 Program을 사용하더라도 프린터된 결과물은 작성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글자의 크기, 구성 등을 나름대로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ㄹ) 응시부문 및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응시 부문은 지원자가 원하는 직종이 무엇인가를 기업에 정확히 알려주는 의미를 갖는다. 응시부문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 가능한 긴급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ㅁ) 깊이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의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후에도 많은 사람이 오랜기간의 준비를 거치는 과정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차분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경쟁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리 여러 통의 이력서를 작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이력서 작성 실전 - 서치펍의 표적이 되는 이력서

서치펍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최초 30여명 정도의 지원자를 자신의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처음부터 지원자의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서치펍은 고민하지 않고 고객사와 지원자를 적시, 적소에 연결해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지원자를 뽑는 상황에서 가장 신뢰성 있게 보는 것은 이력서이다.

따라서 고객사의 요청에 맞는 이력서를 찾다 보면 무엇보다도 요구사항에 맞는 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치펍의 희망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이력서의 초점을 특정 경력에 맞춰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여러 개의 경력을 기술하되 그러한 경력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이력서로 자신을 포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실적을 중심으로 하되 ‘숫자’를 강조적으로 쓴다. 열 마디의 말보다 단 한 개의 숫자가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영업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전년 대비 150%성장, 아니면 매출액 3,000만원이라고 표현하

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ㄱ) 자기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었고,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기술한다. 즉 자신이 웹마스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웹마스터를 맡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가 전체적인 조직에서 타 팀과의 업무와 잘 조화가 됐는지를 설명해 줘야 한다.

ㄴ) 어학 능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고객사의 대부분이 외국어 회화 가능자를 우선으로 함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이 이러한 부분도 다 포함한다고 여기고 소홀히 넘어간다면 그 또한 하나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업무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해도 업무의 성격이 다른 팀원들간의 의사 소통이나 회화 능력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부분이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어학 능력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면 좋다.

ㄷ)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을 것이다. 특히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력사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성격, 환경, 그리고 자신이 담당 한 업무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발췌 : www.sman.co.kr





“안식을 얻으라”

성경 / 마태복음 11:28-30 · 찬송 / 57장, 163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은 쉼(안식)을 얻는데 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전(殿)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1. 주님의 쉼(안식)에로의 초청

본문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로 나아온 사람은 깊고도 아름다운 평화를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예수님 외에는 이처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 말씀에서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신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이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고생을 다 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이다. 여기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고,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하실 영역이다.

2. 쉼(안식)을 얻는 비결

본문 29~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쉼(안식)을 얻는 비결은 (그 한가지 조건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멍에를 메고(지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다. 자기 죽음이 없이는 쉼(안식)을 얻을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내가) 멍에를 메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소에게 씌우는 기구이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은 “네 인생의 고삐를 나에게 다오 내가 계획한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삐를 주님께 드려서(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계속 예수님께서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하셔야 할 일(사명)은 아버지 하나님님의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짐이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갈 때 비로써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안식처

성경 / 마태복음 8:18-20 · 찬송 / 169장, 399장



18.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쌌을 보시고 저 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1. 육체의 안식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창 2:2).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위한 안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땅을(자연 환경을) 저주하셨습니다(창 3:17). 그러므로 인간은 수고하고 땀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 안식을 갈망합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서기관이 주님을 좃으려고 했던 것(마 8:19)은 육체의 안식을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2. 마음의 안식

육체적 안식은 유한한 것이며, 마음의 안식은 순간적입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도 점심때에는 절망하고 저녁에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한 사람도 마음의 안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안식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이 일들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0:10-13).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고서는 영원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3. 영의 안식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 6:63)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안식을 먼저 얻어야 육체의 안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의 안식은 유한적인 것도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안식을 줄 줄 알았지만(히 4:8),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이 주시는 것입니다(히 4:1-3).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사 45:7). 영원한 영적 안식을 얻은 자는 육체의 피곤함도 마음의 염려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경 / 마태복음 12:1-16 · 찬송 / 478장, 534장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9.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좃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쉬을 누리는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에 우리가 꼭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WANGSIMNI 18

1. 바리새인의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에 5리 이상을 걷지 못하게 하고 지팡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엄격한 유대인의 규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음으로 유대인의 규례에 어긋난 행동을 하자 바리새인들은 이 기회를 놓칠 새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안식일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규례대로 한다면 아비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민간인에게 내어준 것은 의식법을 어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그냥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문자적인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근본취지인 이웃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를 정죄하지 않고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보다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3. 참된 안식일의 의미

성도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에 길을 내며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를 인간들의 오락과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오직 한가지는 바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나를 즐겁게 하는 나의 날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만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근본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과 안식

성경 / 히브리서 4:8-11 · 찬송 / 112장, 186장

가정예배
넷째 주간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미래 세계에는 사고력을 가진 컴퓨터와 로봇이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나 로봇의 일이 건전한 의미에서 노동이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옛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옛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쉬는 조건이며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또다른 옛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겠다는 재충전입니다. 노동은 안식을 동반하여야 하며 안식은 노동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1. 성경이 말하는 노동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노동에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일하라고 하신 인간의 과제는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구약에서의 노동은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노동은 철저하게 지혜이며 부와 연관됩니다. 동시에 성경은 열심히 일만하면 성공한다는 인간의 그릇된 견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인간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동이 헛됨을 지적하면서도 힘써 일할 것을 권합니다.

2. 성경이 말하는 안식

성경은 철저하게 안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궁극적 목적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시고 완전히 안식하셨습니다(창 2:3). 구약의 안식은 일을 마치신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일에서 손을 떼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의 실제의 안식은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 안주한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궁극적 안식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3. 노동과 안식의 조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있는 것은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을 예찬한 사람도 있지만 일은 건강케 하는 도구입니다. 노동과 안식의 조화가 잘 되어야 양질의 노동, 양질의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노동과 안식을 잘 조화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성경적 노동과 안식의 원리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구약에서 안식년은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은 거룩하고, 안식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동과 안식은 잘 구별되어야 합니다. 노동과 안식의 조화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냉증에 대한 한방치료

냉증이란 신체의 다른 부분은 전혀 차가움을 느끼지 못하는 실온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만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냉증이 생기는 이유는 자율신경기능의 저하로 인해 혈관운동 신경에 장애를 야기하게 되어 냉감 부위의 모세혈관이 연축(자극을 받은 근육이 흥분하여 수축하였다가, 이어서 이완하기까지의 과정)하게 되므로 그 부분의 혈액순환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냉증의 증상>

겨울이 되면 언제나 손발의 끝이 얼음처럼 차게 되어 버린다.

언제나 발이 냉해서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

추워지면 바로 방광염을 일으켜서 겨울내내 치료되지 않는다.

겨울이 되어 발이 냉해지면 지병인 류머티즘이나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한다.

이런 여러 증상인 냉증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는 극히 드물고 여성에게 많다. 연령별로 보면 17-19세, 45세 이후의 갱년기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결혼, 출산을 맞는 20-35세의 여성과 60세 이후의 여성에게는 아주 적다. 냉증을 호소하는 부위를 보면 허리부분이 전체의 40%, 발 부위가 30%, 그밖에 다리, 손, 배의 순서이다.

<냉증에 효과 있는 약탕(약초욕)>

* **쑥탕** : 냉증, 빈혈, 저혈압, 치질, 요통, 어깨 결림, 타박상, 염좌 등

에 효과 있다.

* **박하탕** : 박하의 줄기와 잎을 건조시켜 육제로 사용한다. 냉증, 근육통, 노이로제 치료에 효과가 있다.

* **마른 무잎탕** : 무의 잎을 건조시켜 육제로 사용한다. 냉증, 저혈압, 신경통, 40대의 견비통(肩臂痛:어깨에서 팔까지의 부분이 아프고 저린 신경통), 치질에 좋다.

* **유탕** : 유자 대신에 굴, 특히 여름 굴의 껍질을 써도 좋다. 냉증, 위장병, 동상에 좋다.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혈행을 좋게 하며 매끄럽게 하고 위장의 활동을 좋게 한다.

<냉증에 효과 있는 한약제>

* **애엽(약쑥)**을 1회 8-12g씩 달여서 복용한다

* **생강이나 계피, 인삼** 등을 장기간 복용한다



Book



주선태 지음 / (주)아가페 출판사
/ 8,900원

아름다운 시작

(A Beautiful Start)

‘현직 대학교수가 밤새 고민하며 하나님을 온 몸으로 영접한 50일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올만한 내용으로 초신자가 써내려간 예수님과의 사랑이야기.

《 기타 추천서 》



어원 루처 지음 / 이용복 옮김
/ 규장 / 7,500원



이재철 지음 / 흥성사
/ 7,500원

Music

소망의바다 part _ 3

성 속

차세대 한국의 대표 CCM 사역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의 자체 제작이 가능한 팀이다.

최근 5~6년 사이 대부분의 한국 CCM 음반 중에서 외국곡이나 찬송가, 외부 작곡가의 곡을 쓰지 않고 100% 본인들의 가사와 곡만으로 음반을 채운 유일한 팀이다.

유수의 명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로 데뷔한 이력과 더불어, 지금도 여전히 소리엘, 송정미, 김명식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음반에 곡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인들의 음반을 제작하는 일들을 섬기고 있다.

“소망의바다 3집-성속”에서 이와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팬층이었던 2집 보다는 더 완성도와 짜임새를 가지고 3년만의 새로운 음반이기에, 본 교회 청년인 ‘전영훈 형제’의 팀이기에 더욱 반가운 음반인 것 같다.



소망의 바다 / Hymns Music / 12,000원(CD)

논 리 야 놀 자

수열 : 셋 중에 참인것은?

다음 세 부등식 중에서 참인 것은 무엇인가?
답을 골랐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1. $0.9999999..... < 1$
2. $0.9999999..... = 1$
3. $0.9999999..... > 1$

【 전월호 정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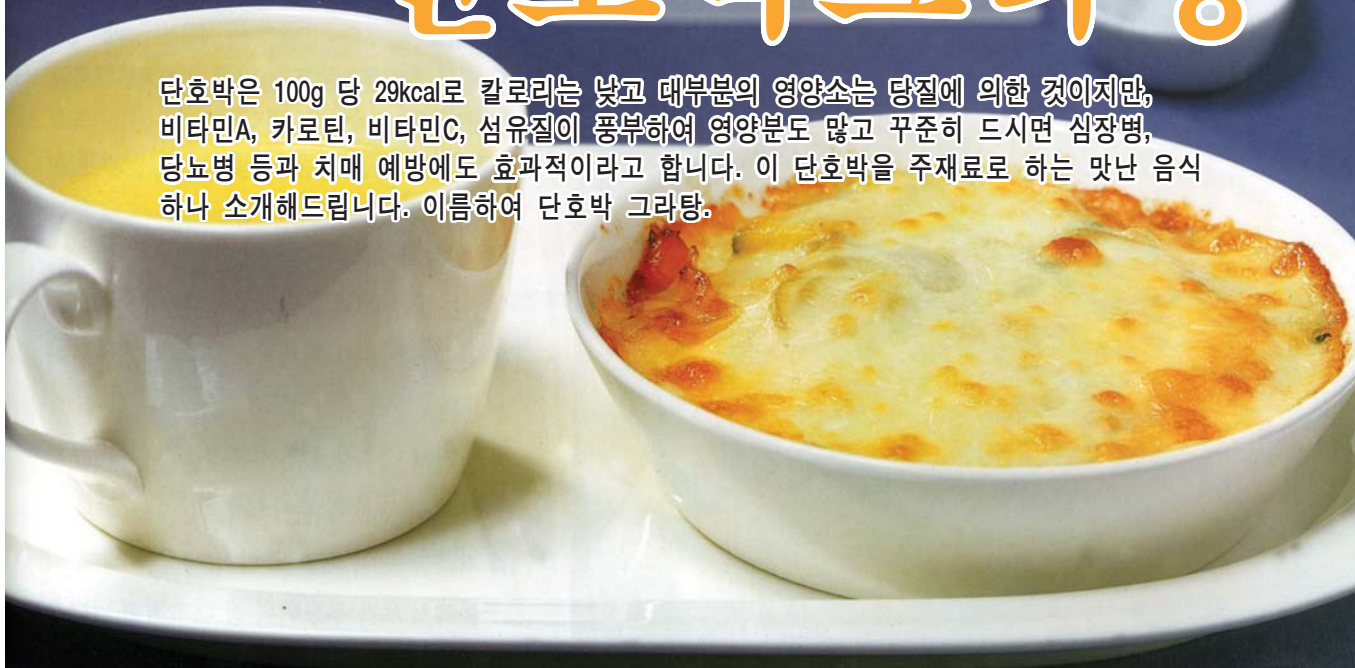
16을 16진수, 15진수, 14진수 ...
3진수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2진수로 나타낸 10000이 정답입니다.



FOOD

단호박그라탕

단호박은 100g 당 29kcal로 칼로리는 낮고 대부분의 영양소는 당질에 의한 것이지만, 비타민A, 카로틴, 비타민C, 섬유질이 풍부하여 영양분도 많고 꾸준히 드시면 심장병, 당뇨병 등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단호박을 주재료로 하는 맛난 음식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름하여 단호박 그라탕.



• 필요한 재료

단호박 200g, 베이컨 1장, 양파 ¼개, 마늘 ½쪽, 옥수수 통조림 ½컵, 버터 ½큰술, 식용유 ½큰술, 밀가루 1작은술, 모짜렐라 치즈 80g, 소스 / 우유 ¼컵, 소금꺼꺼꺼약간씩

• 이렇게 만드세요 -

1. 단호박은 씨와 껍질을 없애고 한 입 크기로 얇게 썬다.
2. 옥수수는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3. 베이컨은 1cm 넓이로 썰고 양파, 마늘은 얇게 저민다.
4. 팬에 버터, 식용유를 넣고 베이컨, 양파, 마늘을 볶다가 단호박, 옥수수, 밀가루를 넣고 볶으면서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다.
5. 버터를 바른 내열용기에 ④를 담고 소스를 넣는다. 모짜렐라 치즈를 올린 후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 강에서 4분간 가열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기도회
 • 새벽 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 오전 11시
 •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 오전 9시
 유년부·초등부 2부 :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 오후 1시

몽골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부 성경공부 :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김재영 장로 지도 : 이승민 목사
 주관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장숙현 집사, 임현석, 홍지혜, 이수정
 사진 : 차주영 미술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객원기자 : 배승원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85-4109